

증례 V - 4

자연치 교합조정을 동반한 다수치의 보철수복 증례

박성규, 최부병, 이성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본 증례의 환자는 39세의 일본인 여성환자로 전반적으로 불량한 접합을 보이는 다수의 보철물과 치근단병소로 인하여 광범위한 보철수복(#17, #16, #12, #11, #21, #22, #26, #27, #36, #45, #46, #47)을 하여야 하는 환자로, ICP상태에서 #17과 #47, #25와 #35, #27과 #37치아에서만 한 점으로 접촉하고 있어 occlusal stability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는 18년 전에 일본에서 모든 보존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며 심미적인 면에서 환자의 불만도가 높았다. 특별한 TMD의 증상은 없었고 다만 환자 스스로 저작효율이 낮아졌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악관절 사진에서는 좌,우측 과두의 전,하방편위가 관찰되었다.

본 환자의 치료목표로 ①적절한 중심위로의 과두위 개선 ②구치부교합의 확립과 이에 조화를 이루는 전치부의 적절한 coupling 완성 ③이를 통한 occlusal stability의 확립과 저작효율의 개선 ④심미성의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Paker occlusal interference가 제거되어야 할 indication으로, "①TMD가 없는 환자에게서 현존하는 교합 상태로 수복치료를 하기 전에 약간의 occlusal disharmony가 제거되어야 할 경우 ②CR상태로 광범위한 수복이 필요한 경우에 CR과 CO사이에 gross한 interference가 존재하는 경우 ③성공적으로 TMD가 치료된 환자에게서 증상의 재발 없이 기존의 교합상태로 회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또한 A.

S. Kaplan도, TMD와 관련과 무관하게, major occlusal change가 필요한 치료의 경우, 보조적인 치료로서 자연치의 교합조정을 indication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보다 안정되고 확실한 occlusal stability를 얻고자 study model을 제작하여 중심위로 교합기에 부착하고 보철수복하여야 할 치아를 model상에서 pin 작업 후 제거하였다. 보철수복하지 않을 치아만 남겨진 상하악 model에서 하악 제2소구치의 협측 교두의 원심사면과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교두의 근심사면과의 조기접촉이 관찰되었다. 보철수복하지 않을 치아들이 안정된 교합을 이룰 때까지 교합조정을 시행하고 이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교합조정을 종료한 결과 ICP시의 교합고경보다 1mm 감소한 교합고경을 보였다. 따라서 이의 위치로 임시보철물을 제작한 후 구강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교합기상에서의 교합조정과정을 구강내에서 재현하고 임시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장착 즉시 환자는 잘 적응하였으며 현저한 저작효율의 개선을 보였다. 3개월 동안의 경과를 관찰하여 설정한 치료목표에 맞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합 조정하여 occlusal stability를 이룬 보철수복하지 않을 치아들과 전치부의 임시보철물을 이용하여 CR bite를 채득하고 최종보철물을 완성하였다. 계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치료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였다.

W. H. McHorris는 자연치 교합조정의 장점으로 "환자가 하악의 위치변화에 적응하기 쉬우

며 발음 및 언어기능이 크게 변하지 않고 환자의 자연치의 심미성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개개치아의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환자의 저작능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적인 교합 완성을 위한 치료로 ①Occlusal adjustment of the existing natural teeth ②Use of orthopedic repositioning appliance ③Orthodontics ④ Full or partial reconstruction of the

dentition (fixed or removable denture) ⑤ Orthognatic surgical procedure ⑥Any combination of above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t 최소의 공격적인 치료접근을 proach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연치 교합조정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구강내와 모형상에서 정확한 진단을 선행한 후 잔존치의 교합조정을 통하여 안정된 occlusal stability가 이룩된 후에 보철수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